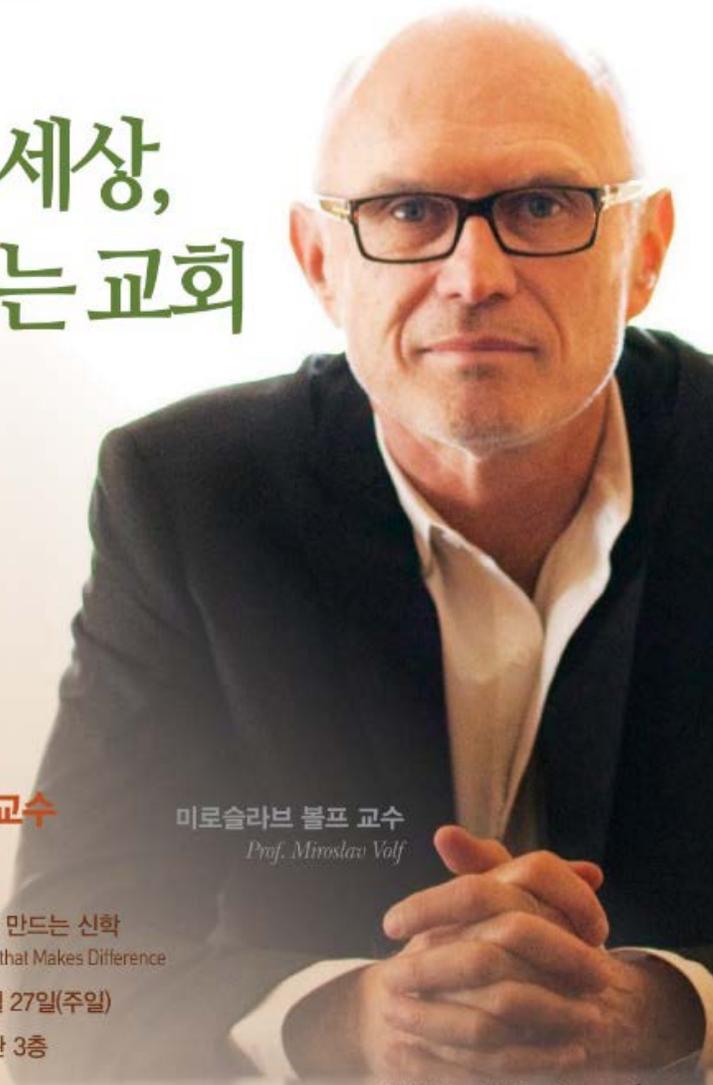




The 11th Underwood International Symposium

## 제11회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

# 길을 잃은 세상, 길을 찾는 교회



▶ 강사 |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  
[Prof. Miroslav Volf]  
예일대학교 신학대학 석좌교수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  
*Prof. Miroslav Volf*

- ▶ 주제 | 세상의 삶을 위하여, 차이를 만드는 신학  
For the Life of the World; Theology that Makes Difference
- ▶ 일시 | 2018년 5월 26일(토) ~ 5월 27일(주일)
- ▶ 장소 | 새문안교회 언더우드 교육관 3층

5/ 26 (The Lord's day)

심포지엄 둘째날

Program

프로그램

04:30~ Opening & Prayer

개회 및 기도

04:50~ Third Lecture

주강연 제 3강

05:50~ Special Session

특별좌담

06:50~ Closing

폐회/사진촬영

# P R A Y E R

Elder Dr. SungGwan Park

# 기 도

박성관 장로  
(준비위원회 위원장)

# O P E N I N G

Rev. Dr. Sang-Hak Lee

# 개 회

이상학 담임목사 (새문안교회)

# GREETING

Rev. Dr. Micah L. McCreary  
(to be translated by Rev. Jinhong Kim)

인 사 말 씀

맥크리어리 총장  
(뉴브런스윅 신학대학교)

# INTRODUCTION OF GUESTS

Senior Deaconess  
Dr. Young Hee Won

내 빈 소개

원영희 권사  
(준비위원회 학술팀장)

# INTRODUCTION OF PRESENTER

Senior Deaconess  
Dr. Young Hee Won

강 사 소 개

원영희 권사  
(준비위원회 학술팀장)

# **Dr. Miroslav Volf** (Yale University Divinity School)

## **Academic Background**

1986 Dr. theol. University of Tübingen (supervisor: Prof. Jürgen Moltmann)

1994 Dr. theol. habil. (no grade given) University of Tübingen,  
(supervisor: Prof. Jürgen Moltmann)

## **Professional Experience**

1997-98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1998- Henry B. Wright Professor of Theology

2003- Founding Director of Yale Center for Faith and Culture Yale Divinity School, New Haven, CT

## **Professional Honors/Aw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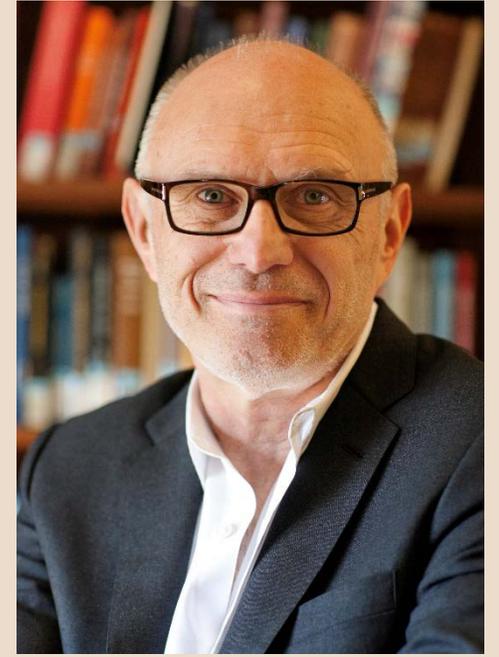
Christianity Today Book Award for 1996, for Exclusion & Embrace.

One of 5 academic theologians named among "50 Evangelical Leaders 40 and under," Christian Today, 1996

Christianity Today one of the 100 most influential books in 20th century for Exclusion & Embrace

## **Scholarly Publications**

"God's Delight," The Best American Spiritual Writing 2004, 254-256.



# Dr. Miroslav Volf 미로슬라브 볼프 (예일 신학대학교)



## 학문적 배경

독일 튀빙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교수자격 취득 (지도교수: 위르겐 몰트만 교수)

## 주요 약력

1997-98 전, 미국 풀러 신학교조직신학 교수

1998- 현, 예일대학교 석좌교수 및 조직신학강의,

2003- 현, 예일 <신앙과 문화연구소> 소장

## 수상 이력

2002년 루이빌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그라베마이어 상(종교 분야) 수상

## 저서

“배제와 포용“ : <크리스챤리티 투데이>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권의 그리스도교 서적 중 한 권.

<크리스천 센추리> 선정, 지난 25년간 출간된 신학 도서 중 가장 중요한 책 중 한 권

“기억의 종말“

# Keynote Lecture

The First Lecture “The Quest”

The Second Lecture “The Renewal”

**Third Lecture “The Challenge of University”**

## 주 강 연

제1강 “탐구”

제2강 “갱신”

제3강 “보편성의 도전”

# Chapter 3: The Challenge of Universality

Dr. Miroslav Volf

## 제 3강: 보편성의 도전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

The entire world and every person as the home God! In a nutshell, this is the vision of flourishing life we argue Christian theology should serve.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집(the home of God)이다! 간단히 말해서, 기독교 신학은 번영의 삶에 관한 바로 이런 비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Though the image of home is deeply biblical and compelling, over the centuries theologians have used other images as well to organize their articulations of the flourishing life:

집의 이미지가 아주 깊이 성경적이고 설득력도 있지만, 여러 세기 동안 신학자들은 번영의 삶에 관한 표현들을 체계화하기 위해 또한 다른 이미지들을 사용하였다.

the “new creation” (building on the writings of the Apostle Paul), the “heavenly city” (building on the book of Revelation), the “kingdom of God” (building on the proclamation of Jesus).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근거한 새 창조,” “요한계시록에 근거한 천상의 도성,” “예수의 선포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 등이 좋은 예이다.

In chapter 6 we ourselves will explicate one variant of the New Testament vision of flourishing life using the image of the kingdom.

여기에서는 신약에 나오는 번영의 삶에 관한 비전의 한 변형을 하나님 나라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All accounts of flourishing life associated with these images—in fact, nearly all Christian accounts of flourishing life—share one important feature that has become unpalatable for many today:

이러한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번영의 삶을 이야기하는 모든 설명과, 번영의 삶에 관한 거의 모든 기독교적 설명들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불쾌한 중요한 특징을 공유한다.

they are substantive, positive visions with a claim to universal validity. A Christian vision of flourishing life addresses every person and the entire world;

그 모든 설명들은 실질적이며 긍정적인 비전들로 보편적인 타당성을 주장한다. 번영의 삶에 관한 기독교적 비전은 모든 사람 하나하나와 온 세상을 다룬다.

notwithstanding humanity's and the world's lush diversity—or, better yet, *in* that diversity—the “new creation” is one, the “heavenly city” is one, the “kingdom of God” is one, “God’s home” is one, and therefore the vision of flourishing is one.

인간성과 세상의 무성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notwithstanding humanity's and the world's lush diversity—or, better yet, *in* that diversity—the “new creation” is one, the “heavenly city” is one, the “kingdom of God” is one, “God’s home” is one, and therefore the vision of flourishing is one.

아니, 오히려 바로 그 다양성 안에서 “새 창조” 도 하나이며, “천상의 도시” 도 하나이고, “하나님의 나라” 도 하나이며, “하나님 집” 도 하나이고, 그러므로 번영의 비전도 하나이다.

The singleness of the vision implies more than that everyone, each in their own way, ought to live it out.

비전의 단일성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그 비전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한다.

All humans and all life on the planet are interdependent, an interconnected ecology of relatedness, which is what the image of home expresses, perhaps, better than any other in the Bible.

지구상의 모든 인간과 모든 생명은 상호의존적이다.  
관계성으로 상호연결된 생태계를 표현하기 위한 집  
(home)이라는 이미지는 아마도 성경의 어떤 다른 이  
미지보다 적합하다.

For one person to truly flourish, the entire world must flourish; for the entire world to truly flourish, every person in it must flourish;

한 사람이 참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온 세계가 번영하여야 한다. 온 세계가 참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그 안의 모든 사람이 번영하여야 하며,

and for every person and the entire world to truly flourish, each in their own way and all together must live in the presence of the life-giving God.

모든 사람과 온 세계가 참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 나름대로 모두 다함께 생명을 주시는 하  
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한다.

The Christian vision of flourishing isn't the only universal one around—a point, together with its challenging social implications, to which we will return shortly.

번영에 관한 기독교적 비전만 유일하게 보편적인 비전은 아니다. 곧 이러한 관점을 다루면서 도전적인 사회적 함의들도 함께 다룰 것이다.

The communist vision of the early Karl Marx is universal in scope and depth as well, to give an example of an atheist universal vision of the true life.

초기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공산주의 비전 역시 범위와 깊이 차원에서 보편적이며. 참된 삶에 관한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보편적 비전의 예를 제시한다.

In the Christian faith—and perhaps partly also in Marx’s account, if his philosophy is a secularized version of Jewish and Christian messianism—the universality of the vision follows from the oneness of God.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메시아 신앙이 세속화한 형태가 마르크스 철학이라면,

In the Christian faith—and perhaps partly also in Marx’s account, if his philosophy is a secularized version of Jewish and Christian messianism—the universality of the vision follows from the oneness of God.

아마도 부분적으로나마 마르크스의 설명에 나오는  
비전의 보편성은 하나님의 유일성으로부터 나온다.

The one God is the abiding source of all creatures and therefore the God of every human being and of the entire world.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지속적인 근원  
이며, 그러므로 전 인류의 하나님이며 온 세상의 하  
나님이시다.

Correspondingly, the divine Word, which became incarnate in Jesus Christ, enlightens every person, and as the Lamb of God that same Word become flesh bears the sin of the whole world.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을 깨우치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  
씀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온 세상의 죄를 지신  
다.

Jesus Christ is, as John's gospel famously puts it,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14:6).

유명한 요한복음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시다(요 14:6).

One way of life is true for all, even if each person walks it in his or her own way;

하나의 생명길이 모든 사람에게 참되다. 각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그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길이 참된 길이 된다.

the destination is one, even though there are many dwelling places in it.

그 안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해도 목적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From one angle, universality is all-encompassing inclusivity: everything comes from the one God and therefore everything flourishes in God's home. But the obverse of monotheism's total inclusivity is a certain kind of exclusivity.

한 측면에서 보면, 보편성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괄성이다. 모든 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번영한다. 그러나 단일신론(monotheism)의 전적인 포괄성의 정반대는 일종의 배타성이다.

Now, there are all-inclusive forms of monotheism (“all gods are One”), but today’s major monotheisms are all exclusive (“no god but the One”). This is true of Islam: “no god but God” are the very first words of the most basic Islamic profession of faith.

그런데 보자, “모든 신들은 하나이다” 라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형태의 단일신론이 있다. 물론 오늘날의 중요한 단일신론들은 모두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며 배타적이다. 이슬람교가 그렇다.

It is also true of Judaism, the tradition that gave the world the gift of allegiance to one God:

“하나의 신 외에 다른 신은 없다(no god but God)”  
는 구절은 이슬람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고백의  
첫 단어들이다. 이는 또한 유대교에도 해당된다. 유  
대교 전통은 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선물을  
세상에 주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sides me” is the key prohibition of the very first of the Ten Commandments.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는 구절은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주요한 금지규정이 다.

Christianity is no different than Judaism in this regard: “no God but One,” wrote the Apostle Paul, repeating in his own way the commitment to God’s unicity of his Jewish ancestors.

기독교는 이러한 측면에서 유대교와 다르지 않다.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고 쓴 사도바울은 자  
신의 유대 선조들이 주장한 하나님의 단일성을 자  
신의 방식대로 반복했다.

A necessary obverse of the affirmation of a universal vision of flourishing rooted in God's oneness is a negation.

하나님의 유일성에 근거한 번영의 보편적인 비전을  
공정하는 관점의 정반대 쪽에는 당연히 부정성이 있  
다.

The one true God is distinguished from many false gods; one true way of life (or multiple true ways of life) are distinguished from false gods; one true way of life (or multiple true ways of life) are distinguished from false ways of life.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은 다수의 거짓 신들로부터 구별되며, 하나의 참된 생명 길, 또는 다양한 참된 생명 길들은 거짓된 생명 길들로부터 구별된다.

The universality of the vision of flourishing that theology seeks to articulate pushes against an important cultural sensibility prevalent in the contemporary West.

신학은 번영의 비전이 지닌 보편성(universality)을 상세히 표현하기 위한 길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은 오늘날 서구에 널리 퍼져 있는 중요한 문화적 감수성에 대립된다.

Many of us have come to think that categories of “true” and “false” do not properly apply to religions; instead, we assess religions in aesthetic or utilitarian terms,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참과 거짓의 범주들이 종교들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신, 종교들을 심미적 또는 공리주의 관점으로 평가한다.

placing a religion as a whole or aspects of its teaching and practice, on the spectrum from attractive to repugnant or from useful to harmful.

하나의 종교 전체, 또는 종교의 가르침과 실천의 여러 측면들을, 매력과 불쾌 사이의 스펙트럼 위에 두거나, 또는 유용과 유해 사이의 스펙트럼 위에 둔다.

We do the same with accounts of flourishing life more broadly. Consequently, a particular account may be good or true for me, but need not be good or true for you or someone else;

우리는 번영의 삶에 관한 여러 설명들도 더 광범위하게 똑같이 대한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설명이 나에게 좋거나 참일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나 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좋거나 참일 필요는 없다.

and if it is good or true for me today, it need not be so tomorrow.

그리고 그 설명이 오늘 나에게 좋거나 참이라고 해서, 내일도 그럴 필요는 없다.

As many of us see it, the sciences, not religions or philosophies of life, stand for truth in contrast to falsehood (though even scientific truths are likely to be put in quotation marks, declared to be merely the positions of a lobby group, when they impinge upon our preferred way of life).

우리들이 알다시피, 삶에 관한 종교들이나 생(生)의 철학들과 달리 학문들은 거짓에 반대되는 진리를 표방한다. 물론 학문적 진리들조차도 우리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을 침해할 때, 인용부호 안에 넣고는 로비 단체의 입장들일 뿐이라고 변명한다.

Scientific research may be *driven by* purposes and values, but it is *about* facts and explanations, not about purposes and values.

그래도 학문적 연구는 목적과 가치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학문적 연구는 사실과 설명에 관한 것이며 목적과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It can tell us a lot, for instance, about what humans tend to desire and why, but not much about what they ought to desire and why.

예를 들면, 학문적 연구는 인간이 무엇을 욕망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 이유에 관한 많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긴 하지만, 인간이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뭘지를 많이 얘기하지 않는다.

There is no truth or falsehood about the ends of our lives, we tend to think. In the domain of purposes and values, we are free, ultimately, to do as we please, provided we don't harm others

우리 삶의 목적들에 관련해서는 참 또는 거짓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목적과 가치의 영역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害)를 끼치지 않는 한 우리는 원하는 대로 어쨌든 자유롭게 행동한다.

(an important condition, but ambiguous, too, because it wrongly assumes that we agree on what constitutes “harm”).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사실 모호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이 “해(害)”가 되는지에 관해 우리들 생각이 같다고 잘못 가정하기 때문이다.

Such a sharp contrast between value-less science and truth-less religion, is untenable.

‘가치와 무관한(value-less)’ 학문과 ‘진리와 무관한(truth-less)’ 종교를 날카롭게 구별하는 입장은 옹호될 수 없다.

Still, even those who grant this point often consider the idea of truth about the direction of our lives and the corresponding “tables of value” problematic.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삶의 방향에 관한 진리의 개념과 여기에 상응하는 “가치의 목록들” 이 문제가 있다고 종종 여긴다.

They worry that a life deemed universally “true” will likely not fit who we see ourselves to be as individuals at any given time or that it will interfere with our choosing the life we want.

그들은 보편적으로 “참” 으로 여겨지는 삶이 어느 특정한 시간 안에 사는 개별자들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염려하며, 그런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염려한다.

They fear that it may push us to undervalue or despise those who do not live “in the truth.”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거나 경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그들은 두려워한다.

Finally, we resist commitment to truth about the good life because we fear that it will divide us into mutually intolerant groups, clashing irreconcilably as we seek to live in a common space.

결국, 우리는 좋은 삶에 관한 진리에 헌신하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서로에게 관용하지 못하는 집단들로 나뉘게 하고 공동의 공간에서 살려면 화해할 수 없을 정도의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In the present lecture we will address these concerns.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다룬다.

First, we will argue that accounts of the Christian vision of true life are available such that those who advocate them can peacefully co-exist and collaborate with people who advocate alternative visions and even learn from them.

첫째, 참된 삶의 기독교적 비전에 관한 설명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적인 비전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으며

First, we will argue that accounts of the Christian vision of true life are available such that those who advocate them can peacefully co-exist and collaborate with people who advocate alternative visions and even learn from them.

심지어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독교적 비전에 관한 설명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논할 것이다.

Second, we will elaborate on how, properly understood, Christian visions of true life take into account the changing particularities of individual lives in specific places.

둘째, 참된 삶의 기독교적 비전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특정 지역들에서 개별적인 삶들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러한 기독교적 비전들이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A Christian vision of flourishing life is not the only one on offer these days. Many positive visions claim to be universally valid, true for all human beings.

번영의 삶에 관한 기독교적 비전은 요즘 사람들이 제시하는 유일한 비전은 아니다. 많은 긍정적인 비전들이 제각각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참되다고 주장한다.

. These visions do not agree with one another, at least not on all essential points; one always denies some crucial aspects of what the other affirms.

이 비전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모든 핵심 주장들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의 비전은 다른 비전이 주장하는 몇몇 중요한 측면들을 항상 부정한다.

We cannot and should not try to avoid contestations among them. Nor can we, of course, simply assert our preferred vision as incontestably good.

비전들 사이의 이런 논쟁들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물론, 우리 역시 선호하는 비전이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좋다고 단순한 주장을 할 수 없다.

Rather, we must approach rival visions of the flourishing life, including the Christian vision, as *contending particular universalisms* and engage in a truth-seeking conversation about them.

오히려, 우리는 기독교 비전을 포함하여 번영의 삶에 관한 경쟁 대상의 비전들을 접근할 때에 특정한 보편주의들(contending particular universalisms)로 여기며 접근해야 하며 그들에 대한 진리 탐구적 대화도 참여해야 한다.

But what exactly do we mean by “contending particular universalisms”? And, if the Christian faith is one of them, does it have internal resources to contend in a way that does not violate and oppress?

그러나 “특정 보편주의들 논쟁” 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도 특정한 보편주의들 중의 하나라면, 기독교는 여타의 보편주의들을 침해하거나 억압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논쟁하는 내적 자원들이 있는가?

In the following we take these two questions in turn, first parsing out the phrase “contenting particular universalism” and then sketching a way to do Christian theology in the midst of such universalisms.

다음에서 우리는 이 두 질문들을 차례대로 다룬다.  
우선 “특정한 보편주의들 논쟁” 이라는 구절을 분석하고, 이어 그러한 보편주의들 한가운데서 기독교 신학을 행하는 방식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Christian theologians work today in the context of multiple contending particular universalisms about the flourishing life, each of them with its own varieties.

오늘날 기독교 신학자들은 번영의 삶에 관하여 다수의 “특정 보편주의들 논쟁” 이 존재하는 상황 안에서 활동하는데 이들은 각각 다양한 형태이다.

We call them *universalisms* not because all human beings will come to embrace them but because they make a claim to be true for all human beings.

우리는 그것들을 보편주의들(**universalisms**)이라고  
명명한다. 모든 인간이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각각 모든 인간에 대해 참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한다.

As we have noted at the beginning of the chapter, the Christian faith is itself one such universalist account—or, more precisely, it is a quarrelsome family of such accounts of the flourishing life.

강의의 시작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했듯이,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그러한 보편주의적 설명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번영의 삶에 관하여 서로 다투는 여러 설명들이 모여 있는 가족 같은 집단이다.

Some universalisms are secular, like the philosophy of Nietzsche or the psychology of Freud; others are religious like Christianity or Islam;

어떤 보편주의자들은 니체의 철학이나 프로이트의 심리학처럼 세속적이며, 다른 보편주의자들은 기독교 또는 이슬람교처럼 종교적이다.

still others are somewhere in-between, like Buddhism or Confucianism (and perhaps the philosophies of Plato or Spinoza).

또한 어떤 다른 보편주의들은 불교 또는 유교, 그리고 아마도 플라톤의 철학이나 스피노자의 철학처럼 세속과 종교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They all contain what their adherents consider to be universally valid claims about 1) the nature of reality, articulated in mythological, metaphysical, or scientific terms; 2) the self, social relation, and the good;

보편주의자들은 모두 그 지지자들이 다음의 네 가지 항목들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기는 특성을 포함한다. 1) 실재의 본질. 이것은 신화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나, 또는 과학적으로 상세히 표현된다. 2) 자아, 사회적 관계, 좋음/선(善).

3) the vision of life that fits both the nature of reality and the character of the self, social relations, and the good; and 4) the proper means of access to the truth of 1-3 which endows them with validity.

3) 실재의 본질에 적합하고, 또한 자아, 사회적 관계, 좋음/선(善)의 특성에 적합한 삶에 관한 비전. 4) 타당성을 부여한 1~3의 진리에 접근하는 고유한 수단.

Even the “soft relativism” so popular in some circles is a universalism, though it may not appear so on first sight.

몇몇 분야에서 아주 인기 있는 “약한 상대주의의 (soft relativism)”조차도 하나의 보편주의이다.

What could the idea of letting each person do his or her own thing have to do with universal values,

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것을 행하게 하는 사상이 보편적인 가치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 수 있는가?

especially if he or she is doing so by being, for instance, a follower of Buddha, Jesus, and Muhammad at the same time and seasoning this home-made brew with insights from experimental psychology?

특히 만일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동시에 부처, 예수, 무하마드의 추종자이며, 양념으로 실험심리학의 통찰까지 넣어 각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행하게 하는 것은 무슨 보편가치들과 관련이 있을까?

But for the soft relativist, letting each person do his or her own thing without subjecting their values to criticism is a moral obligation rooted in the universal *right* of each person to live their own life as they see fit.

그러나 약한 상대주의자에게는 각 사람이 자신의 가치들을 비판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행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이다. 자신이 적합하다고 보는 대로 스스로 삶을 사는 각자의 보편적인 권리(right)에 근거하는 도덕적 의무이다.

Intolerance is the corresponding moral transgression that ought not be tolerated.

불관용은 이러한 점에 상응하는 도덕적 범죄로 관용되어서는 안 된다.

Though each universalism makes claims to truth, none is a complete and strictly closed system. All universalisms in fact have partly permeable boundaries.

각 보편주의가 진리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더라도,  
어느 것도 완전하며 엄격히 폐쇄된 체계는 아니다.  
모든 보편주의들은 사실 부분적으로 침투 가능성  
있는(permeable) 경계들을 갖고 있다.

This is true, to a degree, even of ossified versions like various forms of fundamentalism, which insist on being embodiments of the pure, original faith.

이러한 사실은 순수한 본래의 신앙구현을 고집하는 다양한 형태의 근본주의처럼 경직된 입장들에조차도 어느 정도 해당된다.

The fact that each contains a significant set of convictions that overlap more or less with the convictions of other universalisms suggests such permeability.

각 보편주의가 다른 보편주의들의 확신들과 다소간 중첩된 일련의 중요한 확신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그러한 투과성(permeability)을 암시한다.

Acquaintance with their histories confirms it: each universalism doesn't just change in response to the situation on "the ground" – such as technological, economic, or political transformations – but also through encounter, including contention, with other universalisms.

보편주의자들의 역사들을 알면 이러한 점을 확증하게 된다. 각 보편주의는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변혁들과 같이 “현장에서” 상황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보편주의들과의 논쟁을 포함한 만남을 통해 변화한다.

Each of the three great monotheisms,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has been and continues to be shaped by the other two, for example.

예를 들면, 세 위대한 단일신론들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각각은 다른 두 종교들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고 계속 형성되고 있다.

Despite their particular sources and epistemologies, multiple universalisms are, to a certain degree at least, mutually intelligible, able to criticize one another as well as to learn from one another. In a phrase, they are able to shape one another.

다양한 보편주의들이 각각의 독특한 근원과 인식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어느 정도 상호 이해되며, 또한 서로 배우고 서로 비판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서로를 형성할 수 있다.

All universalisms are *particular*. This may seem like a paradox, but it isn't. It's a consequence of the fact that the human beings who make universal claims about the flourishing life are all creatures of time, space, language, and culture.

모든 보편주의자들은 특수하다(particular). 이 말이 역설일 수도 있으나, 아니다. 이것은 번영의 삶에 관한 보편적인 주장들을 제시하는 인간들이 모두 시간, 공간, 언어, 문화에 속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의 결과이다.

Although their visions are universal in scope, their spread is restricted; even today's most widely embraced universalism, Christianity, commands the adherence of less than a 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비록 인간의 비전이 보편적인 범위를 갖는다 해도 비전의 확산은 제한적이다.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보편주의인 기독교조차도 신자의 수가 세계 인구의 1/3보다 적다.

Though “transplantable” and able to grow anywhere on the planet, each universalism also always has roots in a given place at a given time. The origins, history, and present reality of all universalisms are spatiotemporally particular.

각 보편주의가 세계 어느 곳에도 이식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항상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뿌리를 둔다. 모든 보편주의의 기원, 역사, 현실은 시공간적으로 특수하다.

While we have described them as unities—and they often function as such at the level of global social relations—at local levels of social organization,

우리가 사회조직의 지역적 수준들에서 보편주의를  
통일체로 묘사하였지만, 그리고 세계적 사회적 관  
계의 수준에서 종종 그렇게 기능하지만,

each religious universalism is in fact concrete and alive less in large movements and more in the particular lives of small communities and individual adherents.

각 종교적 보편주의는 대규모 운동들에서보다는 소규모 공동체나 개별 신자에게 사실 더 구체적이고 생동적이다.

The broad coherence of each universalism emerges not just from the common founding figure or founding text but also from the interaction of its adherents at the individual level.

각 보편주의의 광범위한 응집력은 공통의 창설 인물 또는 문서로부터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개별적인 수준에서 신자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생겨난다.

We might imagine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alisms, their local rival versions, and the concrete individual expressions of their adherents on analog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s, their dialects, and the idiolects spoken by individuals.

보편주의, 지역에서의 경쟁적 형태들, 신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 표현들 사이의 관계를 유비적으로 언어(languages), 방언(dialects), 개인어(idiolects)(각 개인이 특유하게 사용하는 언어) 사이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

At the level of concrete experience, only the idiolects “exist”; dialects and languages are abstractions that emerge from the speech patterns of individuals at the level of idiolect.

구체적인 경험의 수준에서는 오직 개인어만이 “존재한다.” 방언과 언어는 개인어 수준에서 행해지는 개인들의 발화 형태들로부터 나오지만 추상화한 것이다.

And yet behavior at the individual level is significantly constrained by the frameworks of mutual intelligibility and convention established by the dialects and languages that emerge. So, too, in the case of contending particular universalisms.

그러나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은 새로 생겨나는 방언과 언어에 의해 확립되는 상호이해가능성과 관습의 틀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서로 경쟁하는 특수한 보편주의들의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

Take Christianity as an example. In a certain sense, “Christianity,” the global religion, does not “exist” in concrete experience; only the lived piety of billions of individuals and countless overlapping communities of faith exist.

기독교를 예로 들어보자. 어떤 의미에서 세계적 종교로서 기독교는 구체적인 경험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수 십 억 개인들과 무수하게 중첩되는 신앙 공동체들이 삶에서 드러내는 경건만이 존재한다.

Whatever the global religion *is*, we understand it by looking at the beliefs and practice of its concrete communities and members.

세계적 종교가 무엇이든지간에, 우리는 구체적인 공동체들과 신자들의 믿음과 실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해한다.

Since time and space inescapably mark universalisms, they are mutable and in fact are always changing, as we noted earlier in the discussion of their permeability: doctrines develop and moral sensibilities shift; practices change, rituals undergo transformations in meaning if not in form.

시간과 공간이 불가피하게 보편주의들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보편주의들은 변화할 수 있고 사실 항상 변화하고 있다. 교리는 발전하고 도덕적 감수성은 변화한다. 실천도 변하며 의식도 형태가 변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변하는 식으로 변혁을 겪는다.

At times, change means departure from the original vision and the beginning of something new, perhaps even incompatible with the original vision (according to some, as when Christianity emerged out of Judaism);

때때로 변화는 본래의 형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고 새로운 것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본래의 형태와는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롭기도 하다. (어떤 것들은 ,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던 때와 같은 경우처럼 양립이 불가능하다).

at other times, change is a requirement of faithfulness to the original vision under new circumstances (according to some, as when Martin Luther starts Reformation of Latin Christendom).

그리고 마치 마르틴 루터가 서방 기독교계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와 같이 때때로 변화가 새로운 상황 하에서 원래의 형태에 신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Mostly the disputes about whether the case was one of departure or faithfulness remains unresolved, and change continues within each.

각각 경우에서 변화가 이탈의 경우인지 아니면 신실의 경우인지에 관한 논쟁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각각의 경우에서 변화는 계속된다.

The particularity of universalisms entails a clear rejection of any claim they might make to absoluteness. They make universal claims, but their particularity rules out any one of them being absolute.

보편주의들이 지니는 특수성은 절대성을 내세우는 어떤 주장도 명백하게 거부한다. 보편주의적 주장들을 내세우지만, 그 주장의 특수성은 어느 것도 절대적이라는 점을 배제한다.

For illustration, take the case of the Christian faith, a religion that has on occasion been deemed absolute.

일례로, 기독교 신앙의 경우를 들어보자. 기독교 신앙은 때때로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온 종교이다. 기독교는 절대적일 수 없다.

Christianity cannot be absolute, even or especially if we accept its basic and traditional doctrinal claims to be true.

비록, 혹은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전통 교리적 주장들을 참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기독교는 절대적일 수 없다.

Now, the Word,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and the Trinity itself, is absolute; God is the Absolute.

말씀(the Word), 즉 삼위일체의 제2위격은 절대적이고, 삼위일체 자체도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But the Word-become-flesh, the God-man Jesus Christ, is not and cannot be absolute precisely because of his inescapably particular humanity.

그러나 육신이 되신 말씀(the Word-become-flesh), 즉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the God-man Jesus Christ)  
는 절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일 수 없다. 정확하게는  
그가 불가피하게 지닌 특수한 인성 때문이다.

He was born in one place and at one time (in Nazareth around 4 BC), was a speaker of a particular language (a Galilean dialect of Aramaic, and possibly Greek),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 장소와 시간, 주전 4세기  
경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특정한 언어, 아람어의 갈  
릴리 방언을, 그리고 아마도 그리스어를 사용하셨  
으며,

was steeped in one religious tradition (Judaism) and shaped by a particular hybrid culture (the Jewish, Roman, and Greek culture of Galilee).

하나의 종교적 전통, 즉, 유대교에 깊이 빠지셨고,  
그리고 특정한 혼합 문화, 즉, 갈릴리의 유대 문화,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Even less so should we ascribe absoluteness any subsequent form of the Christian faith. As the day of Pentecost indicates, from its very inception and expressing in its own way the particularity of Jesus Christ, the church speaks many languages.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후의 어떤 형태의 기독교 신앙에도 절대성을 더 적게 돌려야 한다. 오순절이 알려주듯이, 교회는 바로 초창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특수성을 교회의 방식대로 표현하면서 많은 언어들을 사용한다.

Moreover, as we noted earlier, Christians—including Christian theologians—can know only in part, never exhaustively and never with indubitable certainty, in a word, never absolutely.

더욱이, 우리가 앞에서 주목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학자들을 포함하여, 오직 부분적으로만 알며, 결코 남김없이 알 수 없으며, 결코 의심할 여지없이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한 마디로 말해서, 결코 절대적으로 알 수 없다.

Finally, the diverse universalisms aren't merely sitting next to each other like different flavors of ice cream in the shop freezer.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편주의들은 가게 냉동고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들처럼 단순히 서로 옆에 놓여있지 않다.

Each is a claimant not just to our preference, but to our allegiance, some even to our ultimate allegiance.

각 보편주의는 우리의 취향 또는 선호만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충성을 요구한다. 어떤 보편주의들은 심지어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까지 요구한다.

Each is a *contending* candidate for deep convictions orienting our entire lives, grounding our values and shaping our preferences.

각 보편주의는 우리의 깊은 확신들을 놓고 “논쟁”  
할만한 주제들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가치의 근거를 마련하며 우리의 취향 또는  
선호를 형성한다.

By “contending” we mean that universalisms are always (implicitly, at least) both contesting each other intellectually and jostling with each other for power in a common space.

“논쟁하며 주장한다(contending)”는 말은 보편주의자들이 항상, 적어도 암시적으로는 서로에게 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공통의 공간에서 힘을 얻기 위해 서로 밀치며 다투는 점을 의미한다.

After all, to formulate a vision of the flourishing life with a claim to truth is to offer an alternative “table of value,” to use a phrase from Friedrich Nietzsche, and therefore to contest, at least in part, other already-existing tables of value;

결국, 진리에 대한 주장과 함께 번영의 삶의 비전 표명은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구절을 빌어 대안적인 “가치목록(table of value)” 제시이며, 그러므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기존의 가치 목록들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similarly, to live a vision of the flourishing life is to take social space and exert social influence where other actors are already present and doing the same.

마찬가지로, 번영의 삶의 비전을 산다는 의미는 다른 행위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행동하는 곳에서 사회적 공간을 차지하고 사회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다.

How much space a person or a community will take and in what way they will exert influence will differ, but the *fact* of filling a space and exerting influence will remain.

한 개인 또는 한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할 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행사할 지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공간을 차지하고 영향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That said, contending universalisms are not necessarily “violent.” Contending for a given truth claim *can* lead to violence, but it need not.

그렇긴 하지만, “논쟁하며 주장하는” 보편주의들이 필연적으로 “폭력적일” 필요는 없다. 주어진 진리를 위한 논쟁은 폭력을 초래할 수 있으나 그럴 필요도 없다.

Most universalisms have their own, more or less effective, internal ways of controlling the violence that they might generate

대부분의 보편주의자들은 자초할 수 있는 폭력을 다소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자신들만의 내적인 방식들이 있다.

—for example, commitments to impartiality (for instance, in classical Utilitarianism), to justice (for instance in Islam), to compassion (for instance, in Buddhism), to reversal of perspective (for instance, in Kant's moral philosophy), and the like.

예를 들면, 고전적 공리주의의 경우에서처럼 공평성에 대한 헌신, 이슬람교의 경우에서처럼 정의에 대한 헌신, 불교의 경우에서처럼 자비에 대한 헌신, 칸트의 도덕철학의 경우에서처럼 관점의 전환에 대한 헌신 등등이 있다.

In fact, given the permeability, alterability, and historicity of universalisms, contending, if responsibly done, can lead to mutual learning and result in social compromise and conviviality.

사실, 보편주의들이 지니는 침투성(permeability), 변경가능성(alterability), 역사성(historicity)을 고려하면, 논쟁하는 행위도 책임을 전제로 행해진다면, 상호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타협과 우호성을 이룰 수 있다.

Responsible contending will not happen without intentional effort. Managing contending universalisms is a central challenge of our pluralistic age.

책임을 전제로 하는 논쟁(responsible contending)은 의도적인 노력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논쟁하는 보편주의들을 다루는 시도는 다원적인 우리시대의 중요한 도전이다.

There is a political side to this challenge, fostering political societies which understand themselves as pluralistic with legal arrangements

이러한 도전에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으며, 스스로를 다원적이라고 이해하는 정치 단체들을 조성해야 한다.

and cultural sensibilities that permit and encourage each person and each community to speak and contend in the public square,

아울러, 각각의 지지자들이 폭력을 주창하거나 폭력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각 개인과 각 공동체가 공적인 광장에서 대화하고 논쟁하도록 허용 하고 격려하는 법적 질서들과 문화적 감수성들을 지닌 정치 단체들을 조성해야 한다.

unless its proponents advocate and engage in violence. To meet the challenge, we need two things: (1) political philosophies that are open to all overarching interpretations of life and

이러한 도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하다. (1) 삶에 관한 모든 중대한 해석에 개방적인 정치철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2) articulations of overarching interpretations of life—religious ones as well as secular ones—that are open to pluralistic kinds of political and legal arrangements.

(2) 삶에 관한 중대한 해석에 상세한 표현이 필요하다. 다원적인 정치와 법적 질서들에 개방적인 해석에 상세한 표현이 필요하며, 세속적인 표현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 표현들이 필요하다.

There is also a pedagogical side of the challenge of managing contending universalisms in pluralistic settings.

둘째, 다원적 환경 안에서 논쟁하는 보편주의들을 다루어야 하는 도전적 과제에는 교육의 측면이 있다.

We need to foster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consider it part of their purpose to facilitate critical discussion and appropriation of visions of flourishing life, including the claims they make on our self-understanding, our aspirations, and our images of a desirable future for the world.

번영의 삶의 비전에 관해 비판적인 토론과 수용 촉진을 목적의 일부로 삼는 교육기관들을 육성해야 한다. 세상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 속의 우리의 자기 이해, 열망, 자신의 이미지들에 관하여 이런 교육기관들이 제시하는 주장들을 다루어야 한다.

Such educational institutions will need to see themselves as sites of truth-seeking critical conversation and personal transformation,

그러한 교육기관들은 진리탐구를 위한 비판적 대화와 개인적 변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만 한다.

equipping students to do the difficult work of evaluating the truth claims of multiple contending particular universalisms and contending in a responsible give and take on behalf of the universalism they embrace.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논쟁하는 다수의 특수한 보편주의들을 평가하는 과제와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보편주의를 위하여 책임 있는 타협의 자세로 주장하는 어려운 과제를 해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Can Christian faith, in the time between Pentecost and Parousia, not just exist as such a contending particular universalism but articulate itself theologically so as to positively contribute to managing the relations between contending particular universalisms in pluralistic societies?

오순절과 재림 사이에서 기독교 신앙이 단지 논쟁하는 특수한 보편주의로 존재하기 보다는 더 나아가 다원적 사회들에서 서로 논쟁하는 특수한 보편주의들 사이의 관계를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신학적으로 상세히 표현될 수 없을까?

Or must Christian theology and the Christian faith be managed from the outside because they are inherently coercive, unfit for peace with others in pluralistic societies?

그렇지 못하다면,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강압적이어서 다원적 사회들에 있는 다른 입장들과는 평화로운 관계와는 맞지 않으니 외부로부터 조정이 되어야만 하는가?

Over the course of Christianity's almost 20-centuries-long history, Christians have suffered persecution and they have done the persecuting, and they have both suffered and persecuted on massive scales.

2천년이란 오랜 기독교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했고, 또한 핍박을 가했으며 대규모의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또한 핍박을 가하기도 했다.

Are these two contrary experiences simply two sides of the same violent coin that Christian faith is by its very nature?

정반대의 이러한 두 경험들은 동일한 하나의 폭력  
이라는 동전의 양면일 뿐인가? 기독교 신앙은 본질  
적으로 폭력이란 동전인가?

Did Christians absorb the harsh intolerance they encountered but let it fester itself into their own intolerant mindset and practice, such that the “intolerance of victims” then morphed into “intolerance of perpetrators” when the opportunity arose.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직면했던 가혹한 불관용에 흡수되었는가? 그리고 가혹한 불관용을 더 심하게 만들어 불관용의 의식구조와 실천을 자신의 마음가짐이요 실천으로 만들고 기회가 생기면 피해자의 불관용이 가해자의 불관용으로 변형했는가?

Did Christians' own cruel intolerance light and fuel the intolerance of those who were its targets? There are many examples of both.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잔인한 불관용이 그 대상들이던 이들의 불관용에 불을 붙이고 부채질을 했는가?  
두 경우를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있다.

But the key question is whether the Christian faith has resources, internal to its account of the flourishing life, to contend intellectually and socially with other universalisms without becoming a source of violence.

그러나 핵심 질문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 폭력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서도 다른 보편주의들과 함께 지적, 사회적으로 논쟁하며 주장할 수 있는 자원들, 특히 번영의 삶에 관한 설명을 위한 내적인 자원들이 있는가이다.

We will argue that it does. So why does it have a history of active intolerance? Under what conditions did Christian theologians shove these resources aside and proceeded to legitimize intolerance, persecution, and viol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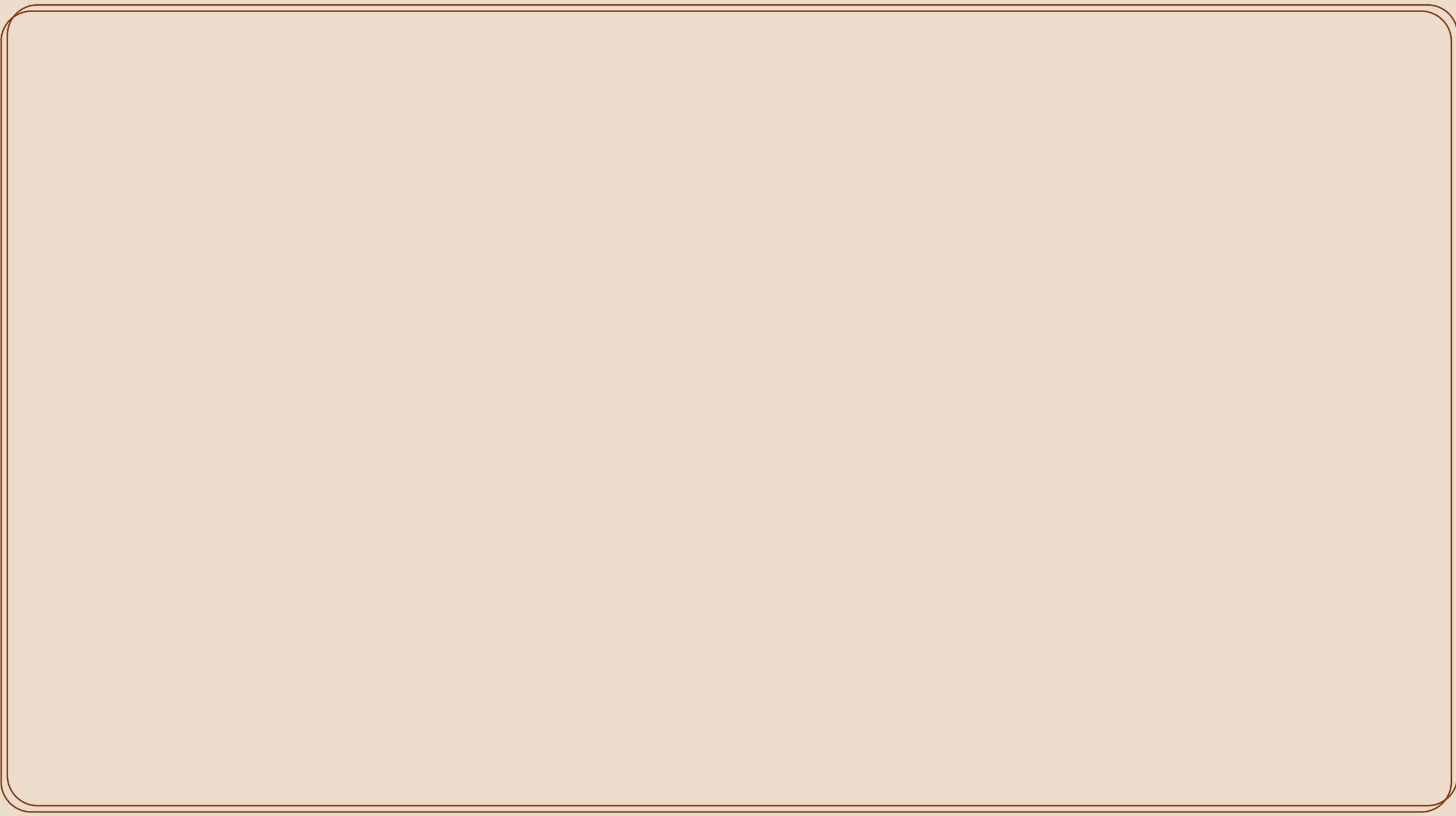
우리는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왜 기독교 신앙에는 적극적인 불관용의 역사가 있는가? 기독교 신학자들은 어떤 조건하에서 이런 자원들은 제쳐두고 불관용과 핍박과 폭력을 정당화했는가?

In *Does Christianity Cause War?* David Martin, a sociologist, proposed how, in a given setting, various elements of an account of the Christian faith come to form a unity—

사회학자 데이비드 마틴(David Martin)은 자신의 책 『기독교는 전쟁을 일으키는가? (*Does Christianity Cause War?*)』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의 설명의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는지를,

how they get “improvised,” to borrow the image we will use below—and offered an explanation under what conditions Christian faith gets formulated to legitimize violence.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를 차용하여 말하자면,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조건 하에서 기독교 신앙이 폭력을 정당화하도록 표현되는지를 설명했다.



We can look at the Christian faith, he suggested, as “a specific repertoire of linked motifs, internally articulated in a distinctive manner, and giving rise to characteristic explorations,

그는 기독교 신앙이 “서로 연결된 주제들의 상세한 목록이며 독특한 방식으로 내면적으로 상세히 표현되어 있고 특유의 탐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but rendered recognizable by some sort of reference back to the New Testament and 'primitive tradition'."

그러나 동시에 신약과 '초기 전통'의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로 참조해야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된다."

Depending on the setting and guiding interests, Christians – including theologians – push some motifs into the background, play up others, and orchestrate them with various degrees of consonance or dissonance with each other and with the setting,

상황과 주요 관심사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제들은 배경으로 미뤄두고, 어떤 다른 주제들은 강조하며, 그리고 주제와 상황과 일치 또는 불일치의 다양한 정도에 따라 하나로 통합한다.

all the while striving to be faithful to the New Testament and primitive traditions.

그러면서 신약과 초기 전통들에는 신실하고자 애쓴다.

There are circumstances, Martin argues, under which Christian faith is likely to be configured to legitimize violence. They occur “when religion becomes virtually coextensive with society and thus with the dynamics of power, violence, control, cohesion, and marking of boundaries.”

마틴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폭력을 정당화하도록 된 것처럼 보인다. “종교가 권력, 폭력, 통제, 결속, 경계표시의 역학관계 차원에서 사회와 거의 공존하는 상태”에 이뤄진다.

This is what happened to Christianity when it became the dominant religion of the empire.

기독교가 제국의 지배종교가 되었을 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As a result, the Christian account of political rule, for instance, started drawing more on the figure of King David, a monarch of a questionable moral standing and a warrior,

그 결과로, 예를 들면, 정치적 통치에 관한 기독교적 설명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윗 왕이라는 인물을 더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다윗 왕은 의심쩍은 도덕적 위치에 있는 군주였고 전사이거나,

than on Jesus Christ, the Messiah whose glory was manifest not just in the resurrection and exaltation but also, and perhaps above all, in his “greatest humiliation,”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존귀에서만이 아니라 또한 아마도 무엇보다도 그의 가장 큰 굴욕으로부터 영광이 드러난 메시아이었다.

as Johann Sebastian Bach, leaning on the Gospel of John (17:1), puts it in the opening chorus of his St. John's Passion.

요한 세바스찬 바하(Johann Sebastian Bach)가 요한 복음에 근거하여(요 17:1) 자신의 성 요한 수난곡(St. John's Passion)의 오프닝 코러스(opening chorus)에서 표현한 것과 같다.

Under those same circumstances also, Tertullian's "it is unjust to compel freemen against their will" in matters of religion could give way to Augustine's "compel them to come in."

또한, 기독교가 제국의 지배종교가 된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의 주장, "종교의 문제에서 자유인을 자신의 의지에 반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주장은

Under those same circumstances also, Tertullian's "it is unjust to compel freemen against their will" in matters of religion could give way to Augustine's "compel them to come in."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 "자유인을 강제하여 믿도록 한다" 는 주장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It is clearly possible to legitimize violence with the help of the Christian faith. Many great theologians have done so (though some would contest that the deployment of power they legitimize is properly described as “violence”).

기독교 신앙의 도움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분명 가능하다.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다. 비록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정당화하는 힘의 사용을 “폭력” 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It is also possible, with arguments we consider wrong, to advocate for an anti-pluralist, unitary Christian state whose laws are to be aligned with God's revealed will.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논증으로 반(反) 다원적, 일원적 기독교 국가를 옹호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런 국가의 법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의지에 맞춰진 것이다.

At the same time, there are compelling pluralistic alternatives, which we would argue are more faithful to Jesus Christ, a marginal Jew, and to the whole New Testament.

그렇지만 동시에 주변인이며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 충실하고 신약 전체에 더욱 충실하다고 주장할 만큼 설득력 있는 다원적 대안들이 존재한다.

What are some key elements of a Christian account of the flourishing life that allow those who embrace it to live in peace and pursue common good in pluralistic settings,

번영의 삶에 관한 기독교적 설명 중 어떤 핵심 요소  
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로 하여금 다원적 상  
황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허  
용하는가?

and do so not only notwithstanding its claim to be true for every human and the entire world, but in part because of it?

그리고 그런 주장이 모든 인간과 온 세상에 해당되는 주장이긴 하지만 일부에서 그렇게 주장하기 때  
문에라도 여전히 허용하는가?

First, *trinitarian monotheism*. Monotheism, some people contend, is the most violent of form of religion (all religions supposedly being violent on account of their irrationality).

첫째, 삼위일체적 단일신론 (**trinitarian monotheism**). 어떤 이들은 단일신론 (monotheism)이 가장 폭력적인 형태의 종교이라고 주장한다. 비합리성으로 인해 모든 종교들은 폭력적이라고 추정한다.

The oneness of God, the extreme version of the story goes, stands for universal sameness. But the one God is the source not just of the unity of the world but of all the incredible diversity in it.

이런 이야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 하나님의 유일성이 보편적인 동일성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세상의 일치성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세계 안의 믿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성의 근원이다.

Since for Christians, the one God is the holy trinity, God is internally differentiated. Difference is not secondary, subsequent to unity; difference is equiprimordial with unity.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분 하나님은 거룩한 삼위일체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적으로 구별된다. 상이성(differences)은 일치성(unity)에 이차적이거나 후차적인 것이 아니며. 상이성과 일치성은 동일하게 근원적인 것이다.

Second, the *God of unconditional love*. God is not a mere omnipotent force. Neither is God a mere universal lawgiver. The central attribute of God is unconditional love.

둘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God of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은 단지 전능한 힘이 아니시다. 또한 하나님은 단지 보편적인 법제정가도 아니시다. 하나님의 중심 속성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As a creator, God loves unconditionally: God brings everything into being and keeps everything in being. God's power doesn't come to creatures first from outside as either supporting or constraining force;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만물이 존재하도록 생성하시고 계속 존재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힘은 지지력 또는 속박력으로서 처음에 외부로부터 피조물에게로 주어지지 않는다.

in relation to creatures, it is first of all the power of their being, establishing their identities and relations.

피조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힘은 우선 피조물의 존재의 힘이며, 피조물의 정체성과 관계성을 형성한다.

As ruler and redeemer, too, God loves unconditionally. God's law is not the arbitrary imposition of a ruler hungry for power and glory; God is always already the Most High with or without human obedience;

하나님은 통치자요, 구속자로서 또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힘과 영광에 굶주린 통치자가 자의적으로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이 있든 없든 항상 이미 가장 지고하신 분이십니다.

God's law is but a mode of God's love. Even when humans fail to live according to the law of love, God seeks to mend the world and bring it to its intended fullness,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다. 인간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세계를 고치시고 본래의 도된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so it can become what God created it to be: our home and God's home in one.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대로 모습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하나  
가 된다.

Third, *Jesus Christ, the light of the world*. Jesus Christ, the Gospel of John claims, is the incarnate Word through whom “all things came into being” and who is “the light of all people.”

셋째,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the light of the world**). 요한복음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말씀으로서, 만물은 그분을 통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빛이다.

All light and all truth, whether possessed by Christians or non-Christians, is the light of the Word and therefore Christ's light.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든 비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든, 모든 빛과 모든 진리는 말씀의 빛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이다.

This too is the consequence of monotheism: not just that the truth about flourishing life Christ proclaimed is for all people, but that all people always already possess some of that truth,

이것 역시 단일신론의 결과이다.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번영의 삶에 관한 진리는 모든 사람을 위함이나, 모든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그러한 진리를 항상 소유한다.

that they have what Justin Martyr famously called “seeds of the Word.”

모든 사람은 순교자 유스티누스(Justin Martyr)가 유  
명하게 명명한 “말씀의 씨앗들(seeds of the Word)”  
을 지닌다.

It cannot be otherwise: if the Word, one of the divine Trinity, is the creator of everything, all genuine insights derive from the God who was in Jesus Christ. All truth sought and found anywhere takes us, ultimately, to Christ.

달리 될 수는 없으니 만일 신적 삼위일체의 하나인 말씀이 만물의 창조주라면, 모든 참된 통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어느 곳에서나 추구되고 발견되는 모든 진리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Fourth, *distinction between God's rule and human rule.*

넷째,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통치의 구별  
(**distinction between God's rule and human rule**).

Monotheism implies two categorically distinct, though related realms, transcendent and mundane, with the absolute primacy given to the transcendent.

단일신론은 서로 관련은 있더라도 범주적으로는 구별되는 두 영역, 초월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을 함축하며, 초월적 영역이 절대 우위성을 지닌다.

It follows that religion (allegiance to God) is a distinct, though not entirely separate, “cultural system” from politics (allegiance to a particular state).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종교는 특정한 국가에 대한 충성인 정치와는 구별되는, 그렇지만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문화 체계 (cultural system)”이다.

The entry of the Christian faith into a political space always pluralizes that space: an individual or a community emerges whose primary allegiance is to the God of Jesus Christ.

기독교 신앙이 정치적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정치적 공간은 항상 다원적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일차적인 충성을 보이는 개인 또는 공동체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The community of Christ's followers is a loose international network of communities whose primary allegiance isn't to the states of which they are citizens nor to some yet to be created global super-state but to the one God of all people.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는 일차적인 충성을 국가에게나 국제적인 초국가에게 보이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의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보이는 공동체들로 구성된 느슨한 국제 연결망이다.

Political pluralism and transnationalism fit well with the Christian vision of flourishing life.

정치적 다원주의와 초국가주의는 번영의 삶의 기독교적 비전에 잘 들어맞는다.

Fifth, the *moral equality of all human beings*. God made all human beings in God's image and Christ came to announce the universal rule of a God

다섯째, 모든 인간의 도덕적 평등(moral equality of all human beings).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를 선언하셨다.

whose chief commands are to love God and neighbor (including the enemy).

하나님의 주요한 명령은 하나님과 이웃, 원수를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All people have equal dignity; all have the same rights and the same moral obligations; all have fallen short of those obligations. There are no moral outsiders according to the Christian faith.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권리들과 도덕적 의무들을 지닌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러한 의무들에 미치지 못하였다.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도덕적인 면에서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다.

Sixth, *freedom of religion and a-religion*. The call of Jesus Christ: “Come, follow me!” presumes that an individual who hears it is free to follow or not.

여섯째, **종교와 무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and a-religion)**.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이 부르심을 듣는 개인이 따르든지 아니든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From the earliest beginnings, it was clear that faith is either embraced freely or not at all: one *believes with the heart*,

신앙이 자유롭게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아주 이른 초기부터 분명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with the heart*) 믿는다.

which is to say not by outward conformity to ambient influences or in reaction to outside dictates backed by overwhelming force, but with the very core of one's being.

주위 영향들에 겉으로 순응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리고 압도적인 강제력의 지지를 받는 외적인 명령  
들에 반응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의  
가장 중심에서 믿는 것이다.

Behind the stress on embracing faith freely lies the conviction that every person h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basic direction of his or her life.

신앙을 자유롭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확신이 담겨있다.

These six principles are foundational to the Christian faith, we would argue.

이러한 여섯 가지 핵심요소, 원칙 원리들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If we embrace them, we will be able, *because of* rather than *despite* our Christian convictions,

이 원칙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기독교적 확신들  
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적 확신들  
때문에 다원적 사회들 안에서 존중의 문화를 육성  
할 수 있으며,

both to nurture a culture of respect in pluralistic societies and to help craft political regimes of respect which open up the space for particular universalisms to dispute with each other intellectually in search of truth and to struggle for social space without the deployment of violence.

특정한 보편주의들을 위한 공간을 형성하는 존중의 정치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 지적으로 논쟁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공간, 또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적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In the previous section, we discussed the threat that universal claims to truth (Christian or otherwise) seem to pose to social peace.

앞에서 우리는 기독교 혹은 다른 진리에 대한 보편적 주장들이 사회의 평화에 제기하는 위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In this section, we take up the concern that universalisms pose an equally dire threat to the *individuality* of persons.

여기에서는 보편주의가 개인의 개별성(individuality)에도 동일하게 끔찍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우려를 다루고자 한다.

The idea that a vision of life can be true for every human being everywhere transgresses against the ideal of authenticity, a pervasive contemporary way of thinking about the kind of life that is good for us to live.

하나의 삶의 비전이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진정성(authenticity)이라는 이상에 어긋난다. 진정성은 우리가 살기에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생각하는 널리 퍼져있는 현대의 방식이다.

The authenticity in question can be individual: each person is unique, and I can flourish only by living in sync with who I am are deep down, something I can only find out on my own by identifying my capacities and listening to my yearnings.

문제는 진정성이 개별적일 수 있다는 데 있다. 각 사람은 독특하다. 그래서 자신의 깊은 내면의 정체성과 동시에 일치하는 삶이어야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한 정체성은 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의 열망들에 귀를 기울여야만 발견할 수 있다.

Alternatively, authenticity can be communal, a view many advocate especially about indigenous cultures before colonial conquests:

그런데 반대로, 진정성이 개별적이지 않을 경우, 진정성은 공동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많은 이들이 특히 식민지 정복 이전의 토착문화들에 관해 주창하는 견해이다.

each culture is unique and members of a cultural group can flourish only when their individual lives are attuned to deep convictions and abiding practices of the group.

각 문화는 독특하다. 그래서 각 문화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삶을 집단의 깊은 확신들과 지속적인 관습들에 맞춰야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다.

In many cases, these two forms of authenticity interweave: social beings that we are, we find our “true self” while discovering “who we are” culturally and socially.

그러나 많은 경우, 진정성의 두 가지 형태들이 서로 얽혀 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찾아내면서 동시에 우리의 “참된 자아” 를 발견한다.

Can a Christian vision of flourishing accommodate cultural differences and individual uniqueness?

번영에 관한 기독교 비전이 문화적 차이성과 개별적 독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가?

Resting as it does on the convictions that all humans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hat Jesus Christ is the key to human flourishing,

번영에 관한 기독교 비전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  
간의 번영에 이르는 열쇠라는 확신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must it not squeeze all humans into a single mold, treating them as identical exemplars of generic humanity?

그 확신이 모든 사람들을 일반적인 인간성을 지닌  
똑같은 예들로 다루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형  
태로 만들고자 압박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The short response: no, it does not. To the extent that a Christian vision of flourishing cookie-cuts people, it denies two of its own key convictions.

간단히 대답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이다. 사람들을 판박이로 만드는, 나아가 번영에 관한 기독교적 비전은 기독교의 핵심 확신들 중 두 가지를 부정한다.

The first is this: human beings are not individual instances of some trans-temporal and trans-spatial human essence but bodily beings and language speakers, and therefore creatures of time, place, and culture.

첫 번째 확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어떤 초시간적이며 초공간적 인간본질을 지닌 개별적인 예가 아니라, 몸을 지닌 존재이며 언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존재들이기에 시간과 장소와 문화의 피조물이다.

The second conviction is this: no life can, ultimately, be genuinely good

두 번째 확신에 따르면, 번영에 관한 기독교적 비전이 사람들의 존재 안에 새겨지지 않고 오히려 외적으로 부과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if a person wears it as an ill-fitting boot rather than as a well-tailored shirt, if it is the law imposed on them rather than inscribed into their very being.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그것을 딱 들어맞는 옷으로  
입기보다는 오히려 잘 맞지 않는 구두처럼 신는다면,  
어떠한 삶도 궁극적으로는 순전히 좋은 삶이 될  
수 없다.

But can the Christian vision of flourishing live up to these convictions? How can a universal faith honor the individual particularities of culturally-situated, bodily beings living in the flow of time?

그러나 번영에 관한 기독교 비전이 이러한 확신들에 부응할 수 있는가? 보편적 신앙이 시간의 흐름 안에 살며 문화적으로 위치해 있는 몸을 지닌 존재들 각각의 개별적인 특수성들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가?

We have argued earlier that Christ's kind of life—the goal toward which he was striving and the way he did the striving—continues in the community of Christ, the church,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우리가 앞서 주장한 대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 그리스도가 얻고자 노력한 목표와 행한 방식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계속된다.

The same Spirit that came to rest on Jesus at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came to rest on the church at the beginning of its history. As various New Testament texts suggest, the Spirit is the divine “particularizer.”

공생애 시작에서 예수께 임한 성령과 동일한 영이 교회 역사의 시작에 교회에 임하였다. 다양한 신약 본문이 암시하듯이, 성령은 “특수하게 만드는 하나님(the divine particularizer)”이다.

At the birth of the church, the Spirit descended upon gathered disciples and they each spoke in different languages, a clear enactment of the culturally differentiated character of the new-born church.

교회가 시작될 때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왔고 제자들은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 이로써 새로 태어난 교회는 문화적으로 특수하게 차별화한 특성을 분명하게 지니게 되었다.

Similarly, in the single local church, the Body of Christ in a given place and at a given time, the Spirit gives diverse gifts to its members, each gift a particular way for a unique person to live the life of Christ and continue the mission of Christ.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모든 지역교회에서 성령은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 각각의 은사는 각각 독특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속하는 하나의 특수한 방식이다.

After Christ's ascension his disciples needed to continue to be led into truth; it did not suffice for them to have given allegiance to Christ who is the "truth."

그리스도 승천 이후로 제자들은 진리에로 계속 인도될 필요가 있었다. 제자들이 “진리” 이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The indwelling Spirit of Christ makes people able to see how the one truth of Christ looks and feels for diverse people at different stages of their lives and living in diverse settings so that they can live “in the truth.” Human life, as all life, is always particular.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진리가

The indwelling Spirit of Christ makes people able to see how the one truth of Christ looks and feels for diverse people at different stages of their lives and living in diverse settings so that they can live “in the truth.” Human life, as all life, is always particular.

삶의 여러 다른 단계들에서 및 다양한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느껴지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심으로 그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The Spirit, who, in the words of the Nicene Creed, is the “giver of life,” tailors that which was designed for all humans to fit each individual.

모든 생명체, 인간의 삶도 항상 특수하다. 니케아신조의 구절에 따르면, 성령은 “생명의 수여자” 이시다. 바로 이러한 성령께서 재단처럼 모든 인간을 위해 계획된 것을 각 개개인에게 적합하도록 조정하신다.

Musical improvisation offers a helpful way to think about the relation between the universal vision of life and its particular enactments. Jazz improvisation, for instance, might at first appear to be wholly free, unfettered, and unstructured.

음악에서의 즉흥연주(improvisation)는 보편적인 비전의 삶과 그것의 특수한 실행들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재즈 즉흥연주는 처음에는 온전히 자유롭고, 무제한적이며, 비체계적으로 보일 수 있다.

In reality, there is a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improvisation itself and what we might call an “improvisational structure.” The structure places boundaries on the freedom of those who play within it, and by doing so it also makes free play possible and meaningful.

그러나 실제로 즉흥연주 자체와 “즉흥연주의 구조 (improvisational structure)” 사이에는 동적인 관계가 있다. 구조는 연주자의 자유에 한계들을 설정하고 연주자는 그 안에서 연주한다. 그렇게 해서 구조가 자유로운 연주를 가능케 하고 유의미하도록 한다.

In jazz, the harmonic and rhythmic structures of a genre (e.g., “blues”), form (e.g., “12-bar blues”), and tune (e.g., “Blue Monk”) place such constraints on those

재즈에서 장르(예를 들면, 블루스), 형식(예를 들면, 12마디 블루스 형식), 곡조(예를 들면, 블루 몽크)로 이루어진 화성적, 리듬적 구조들이 연주자에게 그러한 제한을 설정하고,

who would improvise “over” it or, perhaps better, “within” it.

연주자는 그것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연주하거나, 또는 아마도 더 잘 표현하면, 그 “안에서” 즉흥적으로 연주한다.

While improvisation is inexhaustible—it is always possible to improvise a novel solo within a given tune—improvisation is not a matter of “anything goes.” As many a student of jazz has experienced firsthand, one can do it wrong.

즉흥연주는 무궁무진할 수 있고, 주어진 곡조 안에서 새로운 독주로 즉흥연주가 항상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즉흥연주가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재즈를 배우는 많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으로 경험할 때처럼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다.

Similarly, visions of flourishing serve as structured constraints within which human lives are improvised.

이와 마찬가지로, 번영에 관한 비전들은 구조적인 제약들로서 기능하며 인간의 삶은 그 안에서 즉흥적으로 연주가 된다.

At times, the tonality of our lives clashes with the tonality of the vision into which we're living and we are brought up short, called to repent.

때때로 우리 삶의 조성(調聲)이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비전의 조성(調聲)과 충돌해서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멈추게 하고 회개를 하도록 부른다.

And yet, this constraint is not only negative. In fact, it is primarily enabling and generative. The same vision of flourishing that constrains, provides,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실, 이러한 제약은 일차적으로 가능성을 부여하고 생산적이다.

for instance, a horizon of significance against which

예를 들면, 번영에 관한 비전이 한편으로 제약을 설정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의 지평을 제공한다.

our free choices are meaningful, rescuing us from the nagging demon of arbitrariness.

그래서 이러한 지평을 배경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들이 의미를 지니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의성이라는 악마로부터 우리를 구조한다.

The normative vision of flourishing comes from the life of Christ, a particular life itself lived by the power of the Spirit within

번영에 관한 규범적인 비전은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나온다. 그리스도의 삶 자체는 번영에 관해 이전부터 존재하던 비전 안에서

and in productive tension with a previously-existing vision of flourishing (largely, the Second Temple Judaism of Roman Palestine).

그리고 그러한 비전과의 생산적인 긴장 속에서(대체로, 로마제국 하의 팔레스타인의 제2성전 유대교의 비전)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사신 하나의 특수한 삶이다.

On our musical analogy (which we're quickly stretching to its breaking point!), we could imagine Christ's life as a "genre-defining performance,"

우리가 급히 그 한계점에까지 늘이고 있는 음악 유  
비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의 장르를 규  
정하는 연주(genre-defining performance)”로 여겨질  
수 있다.

a concrete enactment that opens up a sufficiently new set of compositional and improvisational possibilities that it is recognized (usually only retrospectively) to hold within itself an entire new genre.

그리스도의 삶이 자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가진다고 인정될 수 있는, 대부분 오직 회고적으로 볼 때만 인정되는 가능성들, 충분히 새로운 집합의 작곡상, 즉흥연주상의 가능성들을 열어두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여겨질 수 있다.

In an analogous way—keeping in mind that we are shifting from the domain of aesthetic to that of ultimate concern—the life of Christ is particular and yet universally normative.

유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심미적 관심의 영역으로부터 궁극적 관심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의 삶은 특수하지만 보편적으로 규범적이다.

Now, we don't have a "recording" of the "performance" of Christ's life.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삶의 “연주  
(performance)”를 “녹음(recording)”한 것이 없다.

Rather, biblical writers, chiefly the evangelists but also the apostles through whom we first learn about Christ,

오히려,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연주를 계속한다. 특히, 주로 복음서 저자들과 또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연주를 계속한다.

take up Christ's performance by already beginning to translate Christ's concrete enactment of the universal truth of our existence for culturally distinct communities of their time.

그래서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하여 처음 배운다. 그들은 우리 존재의 보편적인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신 그리스도의 실행을 그들 당시의 문화적으로 구별된 공동체들을 위하여 번역하기 시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연주를 계속한다.

The task of Christian theologians is analogous to that of the evangelists and the apostles: building on their “performance” and within the space opened up and structured by Christ, we improvise a universal vision of flourishing for a particular time and place.

기독교 신학자들의 과제는 복음서 저자들과 사도들의 과제와 유비적이다. 그들의 “연주”에 근거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구조화하신 공간 안에서, 우리는 변형에 관한 보편적 비전을 특수한 시간과 공간을 위해 즉흥연주 한다.

That's how we may think of the work of Augustine, Maximus the Confessor, and Luther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 고백자 막시모스(Maximus the Confessor), 루터 등등의 활동을,

or, closer in our time, the work of C. S. Lewis, Howard Thurman, Jürgen Moltmann, Gustavo Gutierrez, or Kathryn Tanner.

또는 우리의 시대에 더 가까이에는 C.S. 루이스(C. S. Lewis), 하워드 쉴만(Howard Thurman), 위르겐 몰트만 (Jürgen Moltmann),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Gustavo Gutiérrez), 또는 캐쓰린 태너 (Kathryn Tanner)의 활동을 생각할 수 있다.

And that's how we may think of each Christian's life, improvised either through a direct reading of the evangelists and apostles or mediated through the work of some theologian.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각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수 있다. 각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서들과 사도들의 편지를 직접 읽음으로써 즉흥연주가 되거나, 또는 어떤 신학자의 저작을 통하여 전달된다.

As we, ordinary Christians and theologians, discern the vision of flourishing opened to us in the life of Christ, we ought to look to the particular enactments of Christian life that have been and are being crafted around us.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며, 신학자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능하게 된 번영에 관한 비전을 파악하려면, 우리는 기독교 삶의 특수한 실행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주위에서 생성되어 왔고 현재에도 생성되고 있는 구체적인 실행들에 주목해야 한다.

Discerning Christianly will mean above all looking for a profound resonance with the life of Christ in scripture, but also with the possibilities for Christian life held in trust among the great cloud of witnesses from past and present.

기독교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과의 심오한 공명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과거와 현재로부터 거대한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 사이에 맡겨져 있는 기독교적 삶을 위한 가능성들과의 심오한 공명을 찾는음을 의미한다.

We should search them out, learn to hear in them the voice of the author of the tune, and imaginatively improvise the next few bars.

우리는 끝까지 그것들을 찾아야 하며, 그 가능성과  
공명 안에서 작곡가의 소리를 듣도록 배워야 하고,  
그리고 다음 몇몇 마디들은 상상력을 살려서 즉흥  
연주 해야만 한다.

# SPECIAL SESSION

Moderator : Dr. Oksu Shin

Translator : Dr. Jaeseung Cha

## 특별좌담

진행: 신옥수 교수

통역: 차재승 교수

# C L O S I N G

Rev. Dr. Sang-Hak Lee

폐 회

이상학 담임목사 (새문안교회)

\* 행사가 끝난 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